

慶州 皇南洞 劍塚(第一〇〇號) 墳이 示唆하는 몇가지 問題

崔 秉 鉉

I,

우리나라 考古學의 다른 分野와 마찬가지로 新羅古墳의 調査研究도 日帝의 韓半島 進出 이래 日本人들의 손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一九二一年 金冠塚의 發見이래 慶州 平地에 남아있던 古新羅 古墳은 그 독특한 구조와 함께 모두가 盜掘輩의 손이 닿지 않은 처녀분으로서 각종 호화유물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寶庫로 인식되었고, 그리하여 日帝의 韓半島 強占期間 동안 日本人들에 의해서 수많은 古墳이 發掘되었다. 그러나 그 發掘結果가 수록된 報告書는 채 一〇篇도 되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正式報告書는 四~五篇에 불과할 뿐이고 나머지는 간략한 略報告나 다른 도서의 내용중에 실린 간단한 소개문에서 그 전말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①.

慶州 皇南洞 劍塚도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로 발굴사진과 도면數枚가 朝鮮古蹟圖譜 第三에 소개되어 있고 그 解說에 약간의 說明이 곁들여 있다②. 이 劍塚은 사실은 金冠塚에 앞서서 慶州의 古新羅古墳으로서는 최초로 본격적인 學術的 發掘調査가 실시된 고분이었다. 그러나 그 巨大한 外形의 威容에 비하여 너무도 초라한 遺物의 出土로 이 古墳은 世人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더우기 金冠塚이 발견될 때까지 日人學者들대로 하여금 新羅古墳에 대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게 하였던 古墳이

기도 하였다.

筆者는 지금까지 發掘된 慶州의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墓型을 구분하고 그 性格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거니와③ 이때 概略이라도 報告文을 접할 수 있었던 發掘古墳 가운데 바로 이 劍塚만은 아주 異例의 인 것이어서 다른 古墳들과 함께 일괄하여 취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論考에서는 劍塚의 內容과 性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유보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 劍塚은 발표된 發掘資料가 너무 간략하고 애매한 것이 많아 그 性格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알려진 資料만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이 劍塚은 新羅古墳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가지 基本的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이 古墳의 內容과 이 古墳이 示唆하는 問題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筆者가 갖게 된 생각과 을 여기에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II,

日帝의 韓半島 進出 이후 慶州古墳에 대하여 처음으로 學問的 관심을 갖게된 사람은 今西龍이었다. 그는 一九〇六年에 처음으로 慶州皇南洞의 한 古墳을 調査하였다④. 이 調査는 試掘에 그쳐서 古墳의 中心部에는 到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 調査를 통하여 外形上 土塚인 慶州 平地古墳의 內部는 積石塚으로서 積石으로 木槨을 擁護하고 있으며 石槨이 없다⑤고 밝혀 古新羅 古墳의 構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였다. 今西龍에 이어서 다음으로 新羅古墳을 調査한 사람은 關野貞이었다. 一九〇九年 그도 또한 慶州皇南洞의 한 古墳을 調査하였는 바 이때도 調査는 試掘에 그치고 古墳 中心部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여 今西龍이 알아낸 지식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머물렀다⑥.

이렇게 해서 日帝의 明治時期가 끝나고 大正年間에 들어서서 關野貞은 谷井濟一과 함께 다시 慶州 皇南洞의 한 大形古墳을 發掘調査하였다⑦. 이 古墳도 全面的인 完全發掘은 아니었지만 積石을 들어내고 遺物을 收拾하였으며 遺物層의 밑 즉 古墳의 基底部까지 調査하게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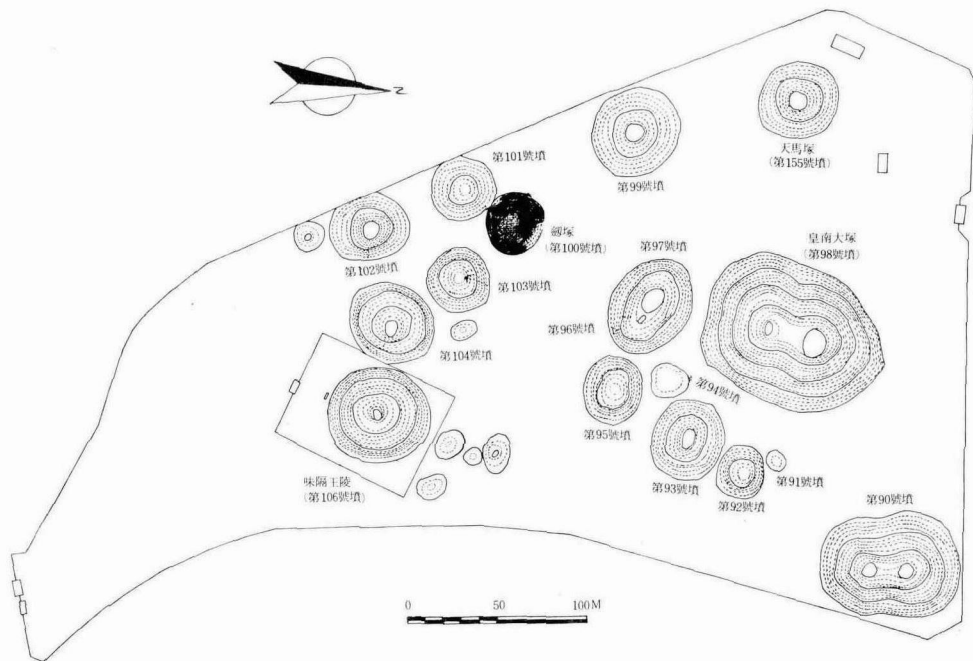


圖 1. 慶州 皇南洞 古墳群 分布圖

新羅古墳으로서 처음으로本格的인學術的發掘調査가 실시된古墳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出土品에 의하여劍塚으로命名된古墳이며後에慶州古墳에 일괄하여 불여진 부호로는皇南洞第一〇〇號墳이다. 이古墳은發掘後外形이復舊되어 지금도 남아 있다⑧.

劍塚의位置는현재古墳公園으로 조성되어 있는慶州皇南洞古墳群 가운데에서도味鄒王陵이라 전하는古墳과 함께大形墳數基가 밀집된남쪽그물의西北端에 해당한다.劍塚을中心으로하여 불때南쪽으로第一〇一號墳과基底部가 맞닿아 있고東쪽으로는劍塚으로부터第一〇三號墳,第一〇五號墳,第一〇六號墳(傳味鄒王陵)이一列로 나란히늘어서 있다.西北쪽에는약간의거리를두고第九九號墳이,北쪽으로는역시약간의거리를두고第九七號墳이 자리잡고 있고第九七號墳의바로北쪽에인접하여皇南大塚(第九八號墳)이 위치하여 있다. 그러므로劍塚의位置는傳味鄒王陵의西便약一〇〇m皇南大塚의南쪽약一二〇m 지점에 해당한다(圖1 參照).

劍塚의發掘內容을살펴보기 앞서서朝鮮古蹟圖譜 第三의 解說에 실려 있는 이古墳의 관계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前記古墳群中の一圓形土墳にして、高さ三十二尺、橫徑百四十一尺、縱徑百四十七尺、內部を調査するに地盤より約二尺二寸掘り下げ、手頃の川石を投げ入れて地固めをなし、木棺と副葬品を藏め、川石を以て之を封じ、其上を五六寸の厚さに粘土を以て覆ひ、更に上を所々小石を混ぜる土を以て覆ひたり、掘り下げたる底面より四尺即地盤上一尺八寸内外の處、川石の間より刀・劍・槍・陶器及び砥等の副葬品を發見せり。特に砥の中央部の瘦せたる、内地の古墳發見の者に頗類せるは奇といふべし、劍二口出でしを以て假に劍塚と名を命じたり。

〔一一一七〕(圖 5) 及び〔一一一八〕(圖 6) の陶器は此塚の上部の封土中より發見せられしものにして此塚の時代よりも遙に後のものなれども便宜に附載す。

此塚は恐らくは新羅初期に屬すべきものにして其構造及び副葬品は以

て當時の文化の一端を徴するに足るべし。」
 以上이 그全文인데 여기서는 이說明과 함께 朝鮮古蹟圖譜 第三에 수록된 이古墳의 發掘圖面 및 사진을 종합하여 構造와 發掘結果를 살피보기로 한다.

이古墳의 外形은 平面이 圓形인 封土墳으로 長徑 약 四四·五m 높이 약 九·七m이었다.

發掘은 封墳 中心部에서 남쪽으로 封墳中央에 큰 南北트렌치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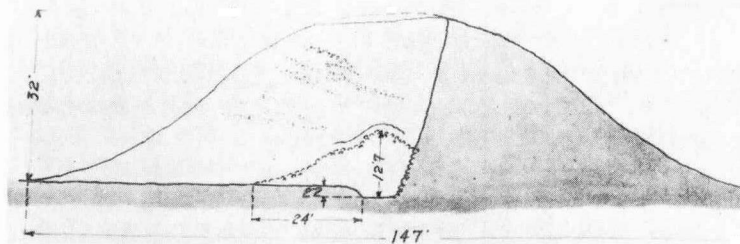


圖 2. 南北斷面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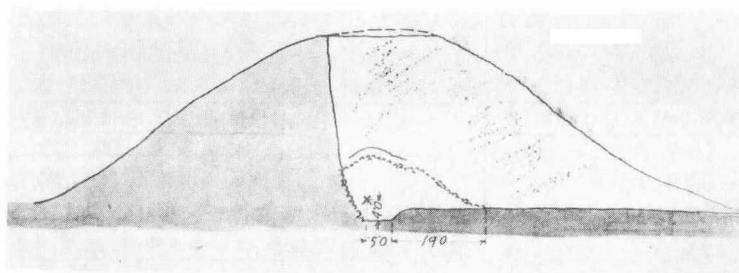


圖 3. 南北斷面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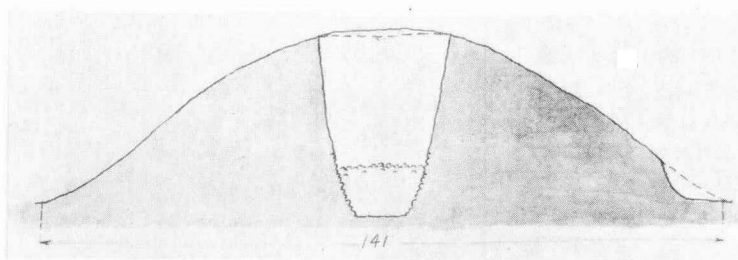


圖 4. 東西斷面圖

하여 이 트렌치를 古墳基底部까지 파내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圖 2의 縱斷圖는 이 트렌치의 西壁面、圖 3의 縱斷圖는 東壁面에 해당되며 圖 4의 橫斷圖는 트렌치의 南쪽에서 北壁面을 본 것이다. 이 圖面들에 의하면 이古墳에는 中心部에 巨大한 一個의 積石部만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埋葬의 主體部는 地盤을 약 六七cm 깊이로 얇은 壙을 파고 設置되었는데 이 壙의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圖 2·3·4의 비례로 보아 南北의 幅은 약 三m 정도이었던 것 같다.

이古墳에 木槨이 設置되었던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遺骸部 床面은 壙바닥 위에 川石을 깔고 設置된 것인데 이 川石層의 두께는 遺物이 發見된 地點을 遺骸部 床面으로 볼 때 약 一·二m가 된다. 그러므로 遺骸部 床面은 주변의 地盤보다 높게 設置된 것이다.

積石部는 높이 약 三·七m, 南北底徑 一四·五m 정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積石部 上面에는 약 一五~一八cm 두께로 粘土가 被覆되었는데 圖 2·3·4로 보면 粘土는 積石部 表面 全面이 아니라 側壁部를 除外하고 蓋部の 積石 表面에만 덮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封土의 築造에 대하여 해설에서는 小石이 섞인 흙으로 쌓았다고만 되어 있지만 圖 二·三을 보면 封土中의 자갈층이 모두 中心部 쪽으로 경사져 있어 封土의 축조수법이 內向傾斜 쌓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古墳에서 遺物은 壙底面에서 약 一·二m 地盤에서 약 五四·五cm 높은 지점에서 출토되

있는데 鐵鉢 二點、砥石 一點、鐵劍 二點、鐵刀 一點과 土器類 六點의 사진이 실려있고 이것은 해설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土器는 長頸壺 一點、瓶 三點、有蓋盒 一點、壚 一點인데 有蓋盒과 壚는 이 古墳의 年代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이 古墳 上部의 封土中에서 出土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III、

筆者는 지금까지 발굴된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墓型을 墓域과 墓槨의 構成狀態에 따라 多槨墓、集團墓 一式、集團墓 二式、瓢形墓、單一圓墓 등으로 나누고 각 墓型은 被葬者의 身分에 따른 것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중 瓢形墓와 單一圓墓는 墓域의 構成狀態는 다르지만 다같이 上位身分 所有者의 墓型으로서 兩者를 합하여 그 안에서 다시 身分의 高下에 따라 第一、二、三類型으로 갈라졌다. 지금까지 발굴된 古新羅 積石木槨墳 가운데 最高 上位身分者의 墓型인 瓢形墓·單一圓墓 第一類型에 속하는 古墳은 皇南大塚、天馬塚、瑞鳳塚、金冠塚、金鈴塚 등이었다. 이들은 金製冠帽와 金製鈔帶를 標識로 하면서 다른 類型이나 墓型과는 비교할 수 없이 호화스럽고 풍부한 遺物을 출토하는 大形古墳이었다⑨.

劍塚를 이들과 비교하여 보면 規模나 各部分의 축조수법 등 構造에 있어서는 瓢形墓·單一圓墓 第一類型에 속할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우선 外形에 있어서 封墳의 크기중 직경 四四·五m는 瑞鳳塚의 三六m보다 크고 金冠塚의 四五m와 거의 같은 규모이다. 封墳의 높이 九·七m 또한 金冠塚의 推定高 一二m보다는 작지만 瑞鳳塚의 推定高 九·六m와 거의 같다. 封土의 축조수법 역시 皇南大塚、天馬塚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大形墳에서만 볼 수 있는 축조방법으로서 外廓에서 中心部 쪽으로 자갈과 山土를 고대로 내려부음으로써 封土 斷面에 자갈층이 封墳 中心部 쪽으로 경사져 있게 되는 內向傾斜 쌓기로 되어 있다.

盤에 얹은 壙을 관 것이나 또 그 위에 川石을 깔아서 遺骸部床面이 地下에 設置되지 않고 완전 地上에 설치된 것은 모두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墓型에 있어서 單一圓墓·瓢形墓 第一類型에서만 볼 수 있는 수법인 것이다. 遺骸部 또는 墓槨部가 地上에 설치된다는 것은 積石部 또한 모두 地上에 설치되게 되어 자연히 積石部와 封墳이 巨大하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劍塚에 있어서도 積石部는 완전 地上에 설치되었고 그 南北底徑은 一四·五m、높이는 三·七m에 달한다. 이 底徑의 크기는 瑞鳳塚의 南北底徑 一〇·二m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에 해당한다. 積石上面의 粘土被覆狀態에 있어서도 天馬塚과 皇南大塚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墓槨部가 地上에 설치되는 大形墳에서의 例대로 側壁部積石의 表面에는 粘土가 덮이지 않고 蓋部積石表面에만 덮여 있다.

이와같이 劍塚은 墓型上으로는 單一圓墓로서 各部分의 규모에 있어서 대체로 瑞鳳塚 내지 金冠塚에 비견될 大形墳이며 各部分의 크기나 축조수법 등 구조적으로는 최고신분 소유자의 墓型인 瓢形墓·單一圓墓 第一類型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古墳에서 출토된 遺物은 鐵器 몇점과 土器 數點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 古墳은 完全發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遺物들이 이 古墳에 副葬된 遺物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굴된 瓢形墓·單一圓墓 第一類型에 속하는 다른 古墳들과 비교할 때 劍塚의 이 出土遺物은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 古墳의 遺骸部가 정확히 얼마나 발굴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圖2、3、4의 비례에 의하면 발굴 트랜치의 底面幅은 三m 이상이며 이 幅으로 遺骸部를 贯通하여 壙의 南北中心에서 더 북쪽으로 가지 조사한 것이 분명하고 또 앞의 引用解說을 보아도 棺部와 副葬品이 있었던 부분을 조사한 것이 틀림없다. 지금까지 발굴된 瓢形墓·單一圓墓 第一類型에 속하는 古墳의 경우 木槨部는 말할 것도 없고 木槨部를 除外한 墓槨部의 一部分 調査하여도 出土遺物이 이 정도에 그칠 수는 없다. 瓢形墓·單一圓墓 第一類型에 속하는 古墳에 있어서 遺物의 副葬은

被葬者 着裝品과 主副葬群 외에도 木棺 주위 그리고 木槨上部의 積石中에도 수많은 遺物이 副葬되기 때문이다¹⁰⁾. 또한 木槨上部에는 土器나 鐵器 외에도 상당수의 裝身具가 副葬되는 것이 常例이다.

劍塚에서 발굴된 部位를 아무리 축소하여 생각해 보아도 遺骸部의 中央部가 발굴된 것은 틀림없다. 다른 單一圓墓·瓢形墓 第一類型에 속하는 古墳의 경우라면 木棺部를 좁은 幅으로만 관통하여도 被葬者가 着裝하였던 裝身具는 일부라도 발견되게 마련이다. 또한 그러한 大形墳의 경우 被葬者의 着裝裝身具는 대부분이 金製品으로 되어있다. 그런데도 劍塚에서는 金製裝身具는 물론 다른 재질의 裝身具도 出土報告가 없다.

이렇게 이 古墳은 규모와 각부 구조에 있어서는 瓢形墓·單一圓墓 第一類型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出土遺物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이 古墳이 갖고 있는 첫 번째의 문점이며 발굴된 古新羅 積石木槨墳 가운데 현재로서는 이 古墳만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다음으로 이 古墳에서 출토된 몇 안되는 遺物 가운데에는 古新羅 積石木槨墳에서는 異例의이고 또한 時期的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이 섞여있다.

먼저 이 古墳에서 출토된 土器類를 살펴보면 有蓋盒(圖5)과 燵(圖6)은 前述한 바와 같이 이 古墳이 축조된 뒤 後世에 封土中에 묻힌 것이기 때문에 이 고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¹¹⁾. 이들을 除外한 瓶類 三點과 長頸壺 一點은 앞의 引用文으로 판단하면 積石內部 遺物層에서 출토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여기 瓶類 三點(圖7, 8)은 지금까지 알려지진 古新羅土器 중에는 잘 보이지 않는 異例의인 器形¹²⁾ 이어서 확실한 대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長頸壺(圖9)는 그 自體의 形式이나 古墳期 新羅土器의 出土狀況으로 볼때 이 古墳의 直接副葬遺物로 보아 무리가 없으며 이 古墳의 가장 적극적인 年代推定資料가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이 長頸壺는 원래 臺附長頸壺이었던 모양인데 臺足이 缺失된 것으로 완전한 古塚古墳期 이후의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그 形態에 있어서 頸部에 배치된 波狀文帶, 위로 치켜올라간 듯한 어깨부를 갖은 胴體部의 모양 등으로 보면 약간 古式傳統을 갖고 있으나 頸部와 胴體部의 균형, 그리고 頸部自體의 各部 비율, 胴體部 크기에 비하여 좁아진 臺足接着部의 면적, 또 頸部에 둘러진 비교적 날카롭지 못한 突線帶의 手法, 밖으로 짝아낸 口緣部의 처리 등으로 보면 이 長頸壺는 初期形式과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발달된 形態의 것이 分明하다¹³⁾.

다음으로 鐵器 및 기타 유물은 前記 引用文에 의하면 모두 遺骸部 副葬品이 틀림없다. 그중 鐵刀(圖10)는 形式(圖12)을 나누기 어려우나 鐵銚 二點은 斷面 圓形의 銚部에서 점점 가늘어져 직접 銚部가 되는 圓錐形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鐵銚는 古墳期 이전은 물론 古墳期 初期 단계까지는 銚部가 劍身形인 것이 일반적이고 최소한 銚部 斷面이 菱形인 것들이 출토된다. 이러한 圓錐形 鐵銚는 대체로 古墳期 初期 단계를 지나서부터 출토되는 것으로¹⁴⁾ 앞의 長頸壺와 직접 연관시켜 같은 시기의 유물로 보아 무리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鐵劍과 砥石에 있다. 鐵劍(圖11)은 二點분이 출토되었는데 一點은 銚部의 先端部만 남아있고 다른 一點은 殘存部分의 길이 가 四·八·二cm이나 劍身 一部가 缺失되어 全體의 길이를 알 수 없다. 또 實測圖가 없어 斷面의 形態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사진으로 보아서는 불록 렌즈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서 鐵劍이 出土되는 것은 北韓의 臺城里遺蹟을¹⁵⁾ 비롯하여 先史土壙墓에서부터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南韓地方에서 지금까지 鐵劍이 出土된 遺蹟은 慶州 入室里遺蹟¹⁶⁾, 慶州 朝陽洞 土壙墓¹⁷⁾, 固城 松川里 솔섬 石棺墓¹⁸⁾, 金海良洞里 土壙墓¹⁹⁾, 朝島 1區貝塚內 圍石墓²⁰⁾ 그리고 釜山 五倫臺 一號石槨墓²¹⁾, 東萊 福泉洞 一號墳(石室墳)²²⁾ 등으로 無文土器時代 末期에서 古墳時代에 까지 걸쳐 있다. 그러나 이종 古墳期 이후 유적인 五倫臺 一號石槨墓와 福泉洞 一號墳의 年代는 土器形式으로 보아 이 지방 古墳期의 初期 단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²³⁾. 그리고 積石木槨墳을 포함하는 古新羅 古墳에서는 劍塚를 除外하고는



圖 5. 土器有蓋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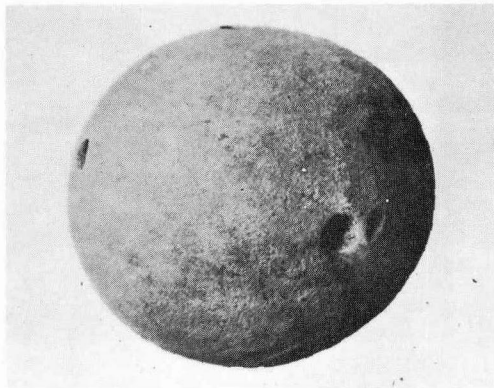


圖 6. 土製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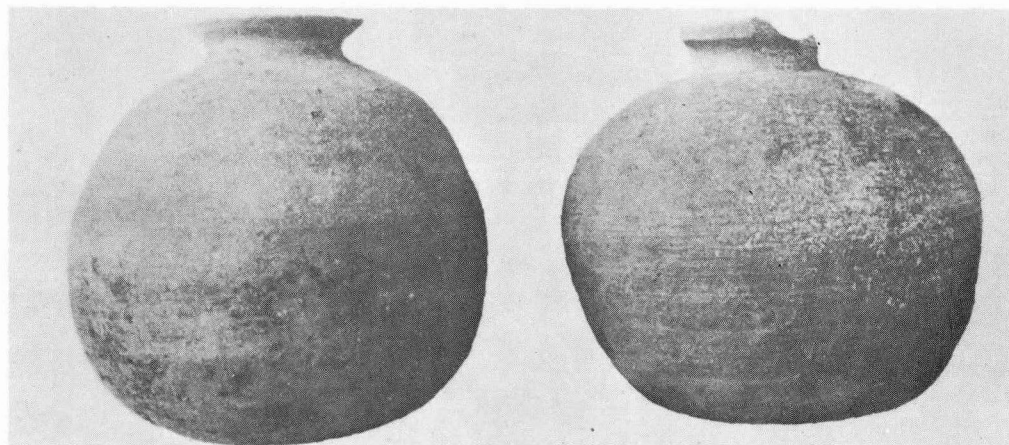


圖 7. 土器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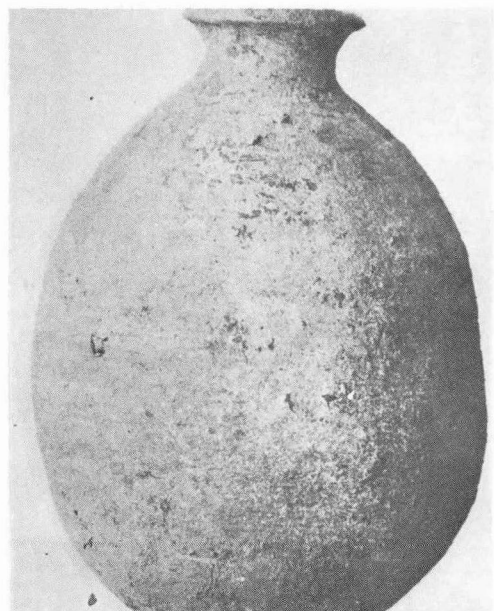


圖 8. 土器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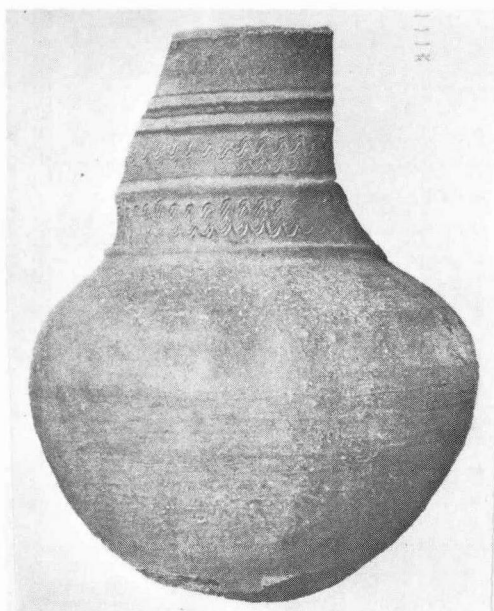


圖 9. 土器長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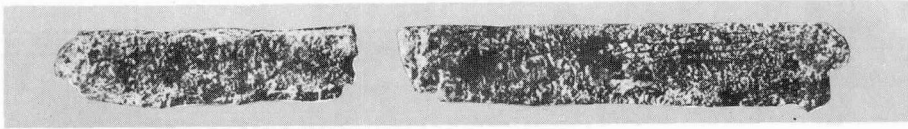


圖 10. 鐵 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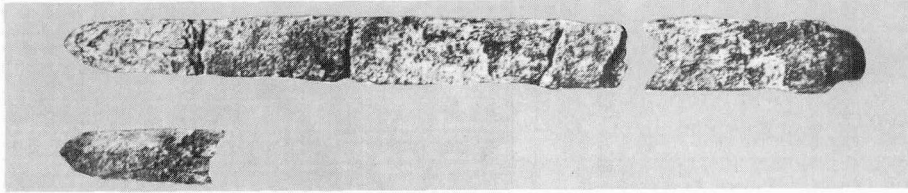


圖 11. 鐵 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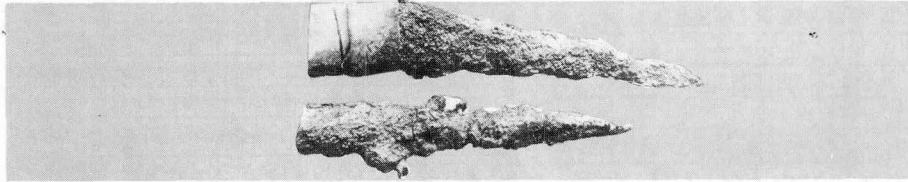


圖 12. 鐵 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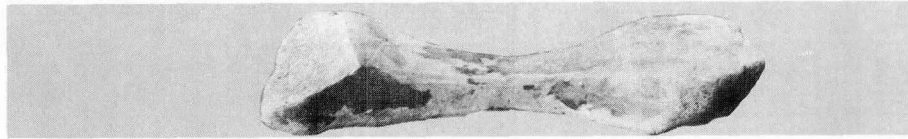


圖 13. 砥 石

鐵劍의出土例가全無하다. 古新羅古墳에서는 다만大小刀類만이出土될뿐이다.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五倫臺와福泉洞의鐵劍은 그것이傳統의殘存物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지高塚古墳期 이후까지도 계속하여鐵劍이盛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우기慶州地域은南部地方에서靑銅器, 鐵器等西北地方의先進金屬文化가 가장 빨리 보급되어왔던 곳을 상기할 때 비록 낙동강 下流地域에서는 初期古墳들에까지도 간혹鐵劍이副葬되었지만慶州地域에서는高塚古墳期 이전에 이미鐵劍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사실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서 볼 때劍塚의 이鐵劍은慶州에서高塚古墳期 이후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더우기 앞에서 설명한長頸壺 및鐵鉞와同時期の遺物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砥石(圖 13)은 길이二七·三cm의 것인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不整形이고 실제 사용으로 인하여四面의 가운데가 깊게 패인 것이다. 다른古新羅古墳에서도砥石의出土例는多數가 있다²⁹. 그러나劍塚을 除外한 다른古新羅古墳出土砥石은斷面方形 또는長方形으로 규격화되어 腰佩中の 佩飾으로出土되거나 반드시 腰佩中の 佩飾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整齊된 것이 副葬되었을 뿐이지劍塚의砥石과 같은 實用品은出土例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實用的인砥石의出土例는 또한土壙墓를 비롯한古墳期以前遺蹟에서 그遺例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²⁵. 이와 같이 볼 때劍塚의 이砥石도 사실은慶州에서高塚古墳期 이후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古墳의出土遺物은古墳의規模에 비하여 극히 빈약하면서도 한편으로 그出土遺物 가운데에는 時期的으로 같이 보기 어려운 卒前後 두 시기로 갈라지는 것들이 한데 섞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古墳을 다른古新羅積石木槨墳과 일괄하여 同質化시킬 수 없게 하는 점인 것이다.

IV.

筆者는 古新羅積石木槨墳의 築造時期를 初葉을 除外한 紀元 四世紀

前半에서, 中葉보다 약간 앞서서의 六世紀 前半까지 약 二〇〇年間으로 잡고 그중에서도 慶州市內 平地에서의 大形古墳의 築造時期는 紀元 四世紀 後半에서 六世紀 初까지로서 新羅史上 麻立干時代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이 시기는 新羅世系에서 金氏가 王權을 독점하여 世襲制를 확립하여 나갔던 때이며 新羅에서 大形高塚의 築造는 이러한 麻立干時代 王權의 成長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된 것이라 생각하였다²⁶⁾. 그리하여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墓型中 瓢形墓·單一圓墓 第一類型的 被葬者는 麻立干時代 新羅의 王과 王妃 그리고 王의 近親들인 有力한 聖骨²⁷⁾들이며 또한 이 時代 金氏王들의 몇몇 直系祖上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提示하였다. 즉 古代社會에 있어서 伸張된 王權을 과시하는 하나의 表現으로 大形の 高塚古墳이 축조되었다 할 때 麻立干時代 이후 新羅王들이 어떤 形態로든 남아있던, 그러나 소규모였던 그들의 祖上墓를 그대로 두었겠느냐 하는 데 의문을 두었던 것이다²⁸⁾. 家系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던 古代社會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家系를 과시할 필요성이 컸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家系의 유래를 과시하기 위해서 外形的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그들의 直系祖上墓를 大形化하였을 可能性은 고려해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三國史記 訥祗王條의 다음 記事가 주목된다.

「十九年二月 修葺歷代園陵」²⁹⁾

訥祗王은 奈勿王의 長子로서 金氏族의 王權獨點을 이룩한 奈勿王 이후 세번째 新羅王이었다. 또한 그는 闕智의 裔孫을 자처하면서 奈勿王과 함께 金氏王權의 확립에 참여하였다가 후에 奈勿王의 뒤를 이어 即位하였던 大西知伊滄系의 實聖王과 의 권력투쟁에서 實聖王을 實力으로 물리치고 即位하여 奈勿王系의 王權世襲을 비로소 확립하였던 인물이었다³⁰⁾. 그러한 인물인 訥祗王代에 歷代의 園陵을 고쳐쌓았다 하는 이 記事는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비록 전후사정을 알 수 없는 짧은 旬節이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高塚古墳이 아니었던 麻立干時代 新羅王들의 祖上墓가 高塚古墳期에 突入한 이후에 세력있는 그들의 後

孫에 의하여 大形高塚으로 再築造되었을 가능성 즉,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大形墳 가운데에는 그러한 後世에 大形化된 新羅王의 祖上墓들이 들어 있을 가능성은 이제 歷史的인 史實로 굳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여기서 筆者는 앞에서 살펴본 慶州 皇南洞 劍塚이 그러한 하나의 具體的인 實例로 등장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慶州 皇南洞 劍塚은 古新羅 積石木槨墳이 密集된 慶州市內 平地의 古墳群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大形古墳이었다. 이 劍塚은 外形이나 규모 各부의 築造手法 등 構造에 있어서는 墓型上 瓢形墓·單一圓墓 第一類型에 속할 條件을 모두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構造에 비하여 또, 다른 新羅古墳에 비하여 이 古墳의 出土遺物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고 한편으로 몇 안되는 出土遺物中에는 시기적으로 다른 즉, 前後 두시기로 갈라볼 수 있는 것들이 섞여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慶州 皇南洞 劍塚은 麻立干時代 이후 新羅王들이 大形化하였던 그들의 祖上墓 가운데 하나이었을 가능성을 짐작 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劍塚을 볼 때 劍塚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리없이 이해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그래도 문제점으로 남는 것은 劍塚과 같이 後에 大形化된 新羅王들의 祖上墓가 원래는 어떤 墓制의 어떤 形態의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으로서 는 달리 해명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다만 劍塚의 경우로 미루어 보면 그 遺骸部 이하의 構造가 古新羅 積石木槨墳 가운데 통상적인 大形墳의 墓槨部 下部構造와 같은 점으로 보아 後에 大形化된 古墳의 遺骸部 위치가 大形化되기 이전의 제자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 판단된다.

V.

지금까지 古新羅 古墳 가운데 최초로 본격적인 學術的 發掘調査가 實施되었던 古墳이면서 그 性格이 애매하였던 慶州 皇南洞 劍塚의 實態와 이에 관련된 문제들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는 바꾸어 말하면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大形墳 가운데에는 실질적으로 高塚古墳期 이전에 사망하였던 被葬者를 그 主人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이들은 古新羅에서 高塚古墳期인 麻立干時代 이후 新羅王들의 祖上墓로써 麻立干時代新羅王들이 그들의 家系를 과시하기 위하여 大形化 또는 改築하였던 것이라 이해된다. 그리고 그 大形化 또는 改築의 史實과 時期가 訥祇王一九年(A.D.435)의 記事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慶州 皇南洞 劍塚은 構造와 出土遺物 사이의 지나친 대조, 그리고 前後 두 時期로 갈라지는 出土遺物의 內容上의 문제점으로 보아 바로 後世에 大形化된 古墳中の 하나로서 그 뚜렷한 實例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麻立干時代 新羅王들의 祖上墓 大形化와 訥祇王一九年(A.D.435)의 기록에서 미루어 보면 이 사실들은 또한 新羅에서 高塚古墳期의 突入時期를 잡는데 하나의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訥祇王一九년에 그의 祖上墓들을 大形高塚으로 改築하였다는 사실은 이것이 新羅에서 高塚古墳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時期는 이미 완전한 高塚古墳期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⑩. 곧 新羅에서 高塚古墳期의 突入은 이보다 앞서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新羅에서 高塚古墳期의 突入을 이보다 數世 전나앞으로 소급시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資料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사실들은 앞서 筆者가 추정하였던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築造期에 대한 年代觀——上限은 初葉을 除外한 四世紀 前半 이후이며 慶州平地에서 大形墳의 本格的인 築造時期는 四世紀 後半부터인 麻立干時代 이후——을 다시 한번 뒷받침할 수 있는 好資料가 된다고 믿는다.

또한 여기서 생각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新羅에서 高塚古墳의 築造年代를 그렇게 볼 때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大陵、竹長陵、또는 竹現陵이라 분명히 기록된 味鄒王陵^⑳、五陵 또는 蛇陵이라 기록되고 現傳하는 新羅始祖 朴赫居世 등의 陵^㉑、그리고 文獻에는 나오지 않으나 現傳하는 脫解王陵과 같은 高塚古墳期 이전에 在位한 新羅王들의 陵墓들

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點이다. 이에 대하여 筆者는 그 記錄들이나 傳稱을 완전 虛構로 돌려버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리어 劍塚과 같은 그러한 觀點에서 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충분히 理解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註)

- ① 伊藤秋男、一九七一、(韓國古新羅時代古墳의 研究史とその現況)「W・シニツト誕生一〇〇年記念論文集」
- ② 朝鮮總督府、一九一六、「朝鮮古蹟圖譜」三、pp.377~341. 同解説 pp.41~42
- ③ 崔秉鉉、一九八〇、一、〈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韓國史研究」三一、三三。
- ④ 梅原末治、一九三二、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本文 p.6
- ⑤ 梅原末治、一九四七、「朝鮮古代の墓制」pp.80~91
- ⑥ 上掲書 및 今西龍、一九七〇、〈新羅舊都慶州の地勢及び其遺蹟遺物〉、「新羅史研究」pp.109~110
- ⑦ 梅原末治 註④ 前掲書。
- ⑧ 劍塚의 發掘年度는 정확히 밝혀진 곳이 없다. 報告文이 실려있는 朝鮮古蹟圖譜 三의 發行年度가 一九一六年임으로 그 이전일 것이다. 그리고 劍塚의 調査後 金冠塚이 發見될 때까지 그 사이에 古新羅 積石木槨墳으로서는 「普門里夫婦塚(朝鮮古蹟圖譜 三、pp.344~350 同解説 pp.43~44)과 一九一八年「普門里古墳(朝鮮總督府、一九二二、大正七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이 발굴되었다. 이들은 모두 慶州市內平地가 아니라 郊外의 丘陵에 위치하고 있었다.
- ⑨ 崔秉鉉、註③ 前掲論文。
- ⑩ 上掲論文、「韓國史研究」三三、pp.22~28
- ⑪ 大形墳의 封土表面가가이에서 後世에 埋藏된 土器 등이 出土되는 것은 皇南大塚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개 火葬의 納骨容器나 胎壺와 같은 것으로 埋藏되었다고 보여진다.
- ⑫ 金正基外、一九七四、「慶州皇南洞九八號 古墳發掘略報告」p.6
- ⑬ 金正基外、一九七六、「慶州皇南洞九八號 古墳(南墳) 發掘略報告」pp.7~8
- ⑭ 古新羅古墳에서 球形胴體의 瓶類 出土例는 아주 希小하여 皇南大塚北塚(金

正基外, 一九七四, 註① 前掲書 圖版 三八의 右)과 味鄒王陵地區 第九區域 A號破壞古墳 第一墓塚(尹世英 一九七五)「味鄒王陵地區 第九區域」A號破壞古墳 調査報告」圖三九,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의 二例가 있을 뿐인데 이들 또한 劍塚瓶類와는 形式上 차이가 많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器種의 形式을 잘라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本考 圖八의 瓶과 같은 形態의 土器는 다른 古新羅古墳에서는 出土例 없는 것이다.

⑬ 이 長頸壺는 그 器形으로 보아 皇甫大塚 南塚의 長頸壺를 보다는 분명히 늦고 대체로 筆者의 古新羅 積石木槨墳 第二期後期나 第三期에 속하는 古墳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筆者의 古新羅 積石木槨墳 相對年에 대해서는 拙稿, 一九八一,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 『韓國考古學報』一〇·一一合輯 參照.

⑭ 古新羅 古墳에서 圓形 鐵鏃는 第一期에는 出土例가 없고 현재까지는 第二期 前期의 皇甫大塚 南塚의 出土例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⑮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一五九八, 「태성리고분군 발굴보고」, 『유적발굴 보고 제五집』.

⑯ 朝鮮總督府, 一九二二,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第二册 p.71 第二六圖 및 p.72 第二七圖.

⑰ 최중규, <慶州朝陽洞古墳群 二次調査 발굴개보>, 『박물관신문 제一〇〇호』, 一九七九年 二月 一日.

朝陽洞 遺蹟에서는 이 無文土器時代 土壙墓의 鐵劍 외에 灰白色瓦質系 土器만 출토되는 다른 형식의 土壙墓에서도 鐵劍 一點이 出土되었다.

⑱ 金東鎬, 一九七七, 「固城松川리 송설석棺墓 古蹟調査報告」第三册, 東亞大學校 博物館, 圖版 三八 및 圖面 一六.

⑲ 金廷鶴編, 一九七二, 「韓國의 考古學」, p.131 삼도 八八.

⑳ 韓炳三·李健茂, 一九七六, 「朝島貝塚」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九册 圖面三六의 ①, 圖版 二九의 (三).

㉑ 金廷鶴·鄭澄元, 一九七三, 「五倫台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圖版 IV의 三, VI의 ③左

㉒ 金東鎬, 一九七一, 「東萊福泉洞第一號 古墳發掘調査報告」圖版 No. 74 및 圖面 No. 44.

㉓ 五倫台와 福泉洞 古墳은 대체로 筆者의 古新羅 積石木槨墳 第一期와 平行하는 시기로 생각된다. 土器의 形式을 집중적으로 다룬 藤井和夫氏의 論文에서도 絕對年代에 대해서는 筆者와 견해가 다르지만 相對年代에 있어서는

五倫台와 福泉洞 遺蹟이 그의 慶州 第II期(筆者의 古新羅 積石木槨墳 第一期는 藤井氏의 I, II期를 포함한 것과 거의 같음)와 併行하는 시기로 보았다. 藤井和夫, 一九八〇, <洛東江下流域 一帶古墳出土土器의 編年>(『子察』, 『神奈川考古』 第九號 pp.141~143.

㉔ 梅原末治, 一九三二, 註④ 前掲書, 圖版 二一四의 (一) 李殷昌, 一九七五, 「味鄒王陵地區 第一〇區域 皇甫大塚 第一一〇號 古墳發掘調査報告」慶州地區古墳發掘報告書 第一輯, p.329 圖版 二八의 ②

金正基外, 一九七六, 註① 前掲書, 圖版 三五.

㉕ 註一五 前掲書 p.36 插圖 一六.

㉖ 崔秉鉉, 一九八一,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 『韓國考古學報』一〇·一一.

㉗ 崔秉鉉, 一九八一, 註③ 前掲論文, 『韓國史研究』三三, pp.47~48

㉘ 崔秉鉉, 一九八一, 註③ 前掲論文 『韓國史研究』三三, p.8.

㉙ 金富軾 『三國史記』 卷第三 新羅本紀 第三 訥祇麻立干十九年條.

㉚ 李鍾旭, 一九八〇,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民族文化叢書』 pp.236~247

㉛ 劍塚의 第二次的인 遺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初期단계를 훨씬 지난 이후의 것이다.

㉜ 金富軾, 前掲書 新羅本紀 味鄒尼師今條
「……二十三年……冬十月王薨 葬大陵(云竹長陵)」
同 儒禮尼師今條
「一四年正月……人或見竹葉數萬積於竹長陵……」
一然, 『三國遺事』 紀異 第一 味鄒王竹葉車條
「……在位二十三年而崩 陵在輿輪寺東……因呼竹現陵……是以邦人懷德與三山同祀而不墜 躋秩于五陵之上 稱大廟云」

㉝ 金富軾 上掲書 新羅本紀 第一 始祖赫居世居西千條
「六十一年春三月居西千升遐 葬地陵 在曇巖寺北」
一然 上掲書 紀異 第一 新羅始祖赫居世王條
「……理國六十一年 王升于天 七日後 遺體散落于地 后亦云亡 國人欲合而葬之 有大蛇逐禁 各葬五體爲五陵 亦名蛇陵 曇巖寺北陵是也……」

(文化財研究所學藝研究士)